

2 0 2 4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전람!

Sharing Jesus!



VOL.23

2024 3-4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음성가

지 2장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1-11

- 0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 0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 0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 0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 0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 0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 0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줌게 하라
- 0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 0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 모세와 아론은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식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찮은 노예들의 신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으며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백성의 노역을 쉬게 만들려는 수작으로 여기고 분노했으며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게 하기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짚을 주지 못하게 했고 짚을 주워 오는 일까지 추가 했으며 그러면서도 하루에 만들 벽돌의 양은 줄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즉시 바로의 명령을 이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고 죽게 됐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온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복음성가

지 7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1-9

- 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 0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 0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 0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 0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 0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 0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 0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 0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신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실의 상황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의 고통이 감소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처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 말씀을 뒤로하고 다시금 환경에 눌러 살아가기보다, 힘들지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롬 5:4).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복음성가

지 339장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1-10

- 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 0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 0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 0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 0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 0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 0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 0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0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낙심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시며 다시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이 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돕는 사람 아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염려하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이 될 것이며, 만약 모세의 언변이 부족하다면 아론이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이나 핑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모세에게 능력과 동역자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할 것이다(3절).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내 손을 뻗어 애굽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4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때(5절). 3절~5절까지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고백해 봅시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복음성가

지 291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6-15

- 0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 0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 0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 0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 이다 하고
-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 임할 두 번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번성을 상징합니다. 개구리는 종에 따라 낳는 알의 개수가 다르지만 보통의 개구리는 한 번에 1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번식력이 애굽의 송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배의 대상이었던 개구리를 재앙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를 비롯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삶이 지금 개구리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무너졌고, 마비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전과 신하와 백성들의 삶에까지 개구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침실과 부엌까지 개구리가 침범하여 잠도 잘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첫 번째 재앙과 같이 요술사들도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지만, 그 행동은 애굽 사람들의 고통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개구리 때문에 힘든데 더 많은 개구리가 나타나자 백성들은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직접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재앙에서 아무런 대꾸도 없었던 바로가 이번에는 먼저 다가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언제 개구리가 애굽에서 사라지면 좋겠는지 정확한 시간을 물었고 바로는 당장이 아닌 내일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요구한 대로 다음 날 개구리를 모든 곳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나일강에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바로의 마음은 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송배의 대상이었던 개구리를 재앙의 도구로 삼으셨고, 또한 바로의 요청에 따라 그 재앙을 정확하게 거두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던 적이 있다면 가족들과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복음성가

지 406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18-26

- 18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 19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 20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 21 여호와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렛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 24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 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찢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 26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1. 벌써 일곱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앞선 여러 재앙을 지켜보던 바로의 일부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박 재앙을 앞두고,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밖에 있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켜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들에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놔두었던 애굽 사람들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피할 길이 있었고, 곤경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놀라운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 애굽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세워진 날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우렛소리와 함께, 그리고 불덩이가 섞인 크고 무거운 우박이 맹렬히 내렸습니다. 말씀은 애굽 온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도 무시무시한 재앙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앞선 다른 재앙과 다르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길, 구원의 길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족 또는 가까운 주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항변하는 베드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복음성가

지 378장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21-28

- 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 예수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숨기셨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삼 일째 되는 날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듯이 강하게 말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획이 싫었고 하나님도 그런 계획을 세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항변하는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고 그 일을 좋지 않게 여기고 막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의 목숨은 가졌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예수님만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복음성가

지 219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1-8

- 0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 0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 0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 0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 0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 0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 0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 0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1.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의 영적 체험과 함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놀라운 체험에 이어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남지 않는 황홀함은 잠깐이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2. 매우 특별하고 황홀한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가 너무 좋으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요구는 화려하고 위엄스러운 광경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즉흥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영적 체험 가운데 이것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심정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엡4:13). 만족하며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 성장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작은 믿음! 무한 능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복음성가

지 180장

세상 흔들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14-20

-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 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 18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
- 19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지속적으로 가르침과 훈련을 행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1은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바로 앞선 장면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능력과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과 아들을 붙잡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경험과 지식은 늘어났지만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은 자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결핍이며 패역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나, 신앙생활의 경험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 예수님께서서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으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온전한 믿음으로 경험했던 은혜를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복음성가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22-27

- 22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 23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 25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 26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열두 제자가 모두 모였을 때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앞선 16장에서 첫 번째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두 번째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이후에 분명하게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매우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이 꿈꾸는 자유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 중 베드로에게 반 세겔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반 세겔을 내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 세겔은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일 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표현보다 ‘주님’이라는 호칭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반 세겔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와 유대의 랍비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봅시다.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내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고, 거하는 모든 자리가 아내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의 존재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가 어디로 가든지 **자녀이름**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름**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1:9)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이름**를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이름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이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부모님의 기도와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로 인하여 염려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 가족을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항상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와도 같은 안정감을 주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닐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